

주간 증시 브리핑

2026.9.28(월)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Executive Summary

- **[증시요약]** 추석 연휴로 3거래일만 진행된 지난 주 코스피는 **美/이란 간 협상 기대와 메타의 에이전트 앱 뮤즈의 흥행** 속에 7천선을 회복함(7,080p, 주간 +186p, +2.7%). 코스닥은 3주째 상승함(844p, 주간 +2.1%). **원달러는 9/19일 이후 재차 하락하며 1,350원대로 밀림.**
- **[해외증시]** S&P500은 주중 유가와 금리 급등(10년 5.2%)가 불안해졌으나, Tech주를 중심으로 상승함. 나스닥지수는 9/22일 6월초 이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함(주간 S&P500 +1.2%, 나스닥 +2.1%). 닷케이는 실버윙크 연휴 이후 2거래일 동안 상승함(주간 +2.1%). 中 증시는 알리바바의 AI 인프라 구축 계획에도 美中 무역 휴전이 2개월 연장에 그치자 하락 반전됨(상해 -0.6%, 홍콩 -1%).
- **[시장전망]** 국내 증시가 추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유가 안정과 3Q 실적 확인이 필요함. 수출은 호황이나, 6월 이후 원달러 환율이 -13%나 급락함. 수출기업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 국제유가 역시 금리와의 관련성이 높아짐. 유가 안정이 증시 레벨업을 위한 조건임.
- **[주요일정]**
 - ① 美 8월 PCE 물가지수(9/30일)
 - ② 美 9월 고용보고서(10/2일)
 - ③ 美 9월 ISM 제조업 PMI(10/1일)
 - ④ 韓 9월 수출(10/1일)
 - ⑤ 韓 9월 소비자물가지수(10/2일)
 - ⑥ 美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발표(9/30일)
 - ⑦ 中 증시 휴장(中國경절 10/1~7일, 8일 개장)

구분		9/25	1W	1M
KOSPI	↑	7,081	2.7%	5.0%
S&P500	↑	7,743	1.2%	0.9%
DOW	↑	51,829	0.3%	-3.3%
닛케이225	↑	66,364	2.1%	0.8%
상해종합	↓	3,888	-0.6%	0.0%
원달러(원)	↓	1,357.5	-1.9%	-2.1%
엔달러(엔)	↓	157.8	0.0%	-0.9%
국고채3년(%)	↓	4.006	4.035	3.83
국고채10년(%)	↓	4.392	4.466	4.32
미국채10년(%)	↑	5.164	4.997	4.630
WTI(달러/배럴)	↓	92.4	-7.9%	12.2%
한5-yrCDS(bp)	↑	23.6	2.62	1.6

CHART of the week

유가와 금리의 동행



1

美 10년국채금리 5.2% (9/25일)

유가 불안에도 美 경제지표 호조

- 연휴 기간 동안 **美 10년/30년 국채금리는 2000년대 이후 최고 수준으로 급등함.** 10년물 금리는 5.2%까지 올랐다가 5.16%로 마감.
- **美/이란 간 협상 재개 기대에도, 예멘 후티 반군이 사우디 석유 수출 터미널을 공격하자 브렌트 유가는 재차 100달러를 상회함.**
- 여기에 **8월 美 S&P Global 서비스 PMI지수가 58.7pt로 5년래 최고치로 상승함.** S&P Global 제조업 PMI지수도 57.0으로 4년래 최고로 상승함. 10월 금리인상 확률이 55%에서 65%로 급등함.
- 유가 불안에도 美 경제 지표 호조로 위험자산 불안이 심해지지는 않고 있음. 그러나 금리가 높아질수록 산업과 업체간 차이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음. 다시 실적에 대한 관심이 커질 듯.

2

韓 9월 1-20일 수출 +78.3%yoy 증가(9/21일)

반도체수출 호조, 3Q 실적 및 성장을 달성 무계

- **韓 9월 1-20일 수출은 741억 달러로 +78.3%yoy 증가,** 동기 역대 최대를 기록. 조업일수를 감안한 **일평균 수출액은 46.1억 달러로 +89.8% 급증함.**
- 반도체수출은 341.3억 달러로 +259.4%yoy 급증,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7.8%까지 높아짐.**
- 반도체 외 품목도 회복세임. 석유화학(+47.8%), 선박(+63.0%), 승용차(+9.3%) 수출이 증가함. **휴가 및 파업 영향에서 벗어나 상승 전환됨.**
- 수입에서는 반도체 제조장비(+55.6%) 증가하며 증설 투자가 이어지고 있음을 시사.
- **3Q 기업실적에서 일부 수출 산업들의 환율 영향이 예상되나, 실적증가 추세는 유효함.**

3

美 메타 AI 에이전트 'Muse' 흥행 (9/21일)

편한 AI 에이전트, AI 주도권 다시 빅테크로

- **美 메타가 출시한 AI 에이전트 뮤즈(Muse)가 9/21일 아이폰 앱 다운로드 1위에 오름.**
- 메타는 구독 없이도 주당 최대 1억 토큰을 무상 제공. 사실상 무료임. 비용 부담이 소비자에서 판매자로 이전되는 구조임.
- 소비자들의 진입 장벽이 낮아진 만큼 가파른 성장세가 예상됨. 에이전트의 활용도가 높아질수록 소비와 결제 업체들의 피해가 예상.
- 반면 에이전트 서비스가 늘어날수록 **고사양 반도체보다 CPU와 범용 반도체/메모리 수요가 늘어날 전망.**
- AI 모델간 경쟁이 치열해 질수록 직접 고객과의 접점이 많은 기존 빅테크들이 유리해질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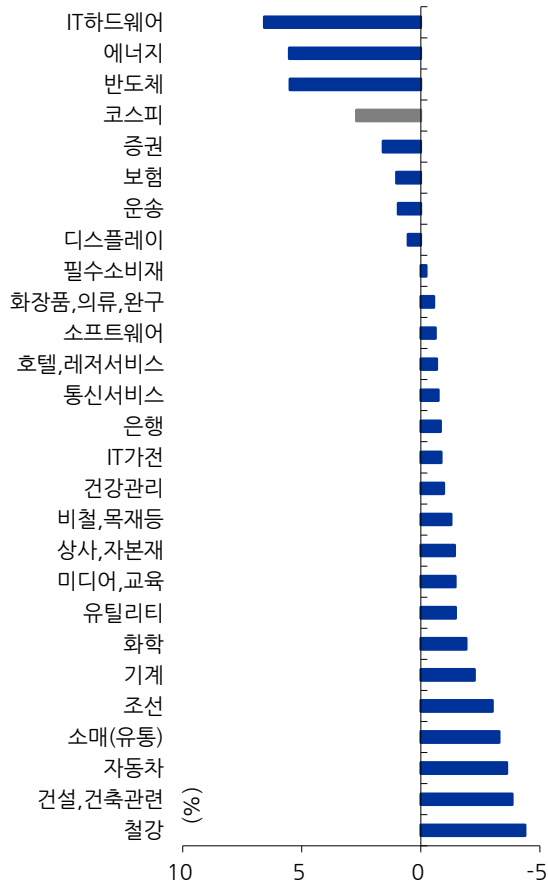
4

韓 채권시장 동향(9/21~23일)

유가 하락 속 볼 플래트닝

- **국고채 3년물 금리 4.006%(-2.9bp), 10년물 금리 4.392%(-7.4bp) 마감.**
- 주초 영국 국채 강세 되돌림과 프랑스 재정위기 촉발 유럽 금리 상승에 장기금리가 소폭 상승했으나 영향은 크지 않았음.
- 추석 연휴를 앞둔 마지막 거래일(9/23일)은 거래량 얇은 가운데 국제유가가 5거래일 연속 하락, 외국인은 10년물 위주 국채선물 순매수하며 장기물 상승 견인. 주간 커브는 볼 플래트닝.

주간 업종별 수익률(9/23일 기준)



주요 경제지표 예상(9/28~10/2)

美 8월 PCE물가(9/30일)→산정방식 개편 높아진 민감도

- 美 8월 CPI는 +0.4%mom, +3.4%yoy 상승. 근원 CPI가 +0.3%mom으로 예상(+0.2%) 상회
- 에너지 물가는 전월비 +2.1%, 휘발유는 +3.9% 상승해 월간 CPI 상승분의 1/3 이상을 기여, 헤드라인 물가를 견인
- 이번 PCE 발표부터 개정 적용됨. 1)포트폴리오 관리. 투자자문 서비스는 기존 PPI로 명목지출을 디플레이트하는 방식 대신 고용자료 기반 수량지표를 활용해 실제 소비량을 정확히 반영하도록 수정
- 2)법률서비스는 변동성이 컸던 CPI 대신 세부 PPI 합성 지수를, 3)컴퓨터 소프트웨어·액세서리는 CPI와 게임 소프트웨어·IT인프라 PPI를 결합한 지수 적용
- 연준 9월 인상 이후 연내 추가 인상 가능성이 열려 있어 물가지표 관심 높아짐. 8월 근원 PCE는 +0.3%mom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美 9월 고용보고서(10/2일)→고용 안정 속 영향력은 제한적

- 美 8월 비농업 고용은 +16.2만명으로 시장 예상을 상회. 실업률은 4.1%로 전월과 동일했고, 6~7월 고용도 합산 +5.5만명 상향조정
- 4주 평균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는 20만건 수준. 해고압력은 여전히 낮아 고용시장 급랭 신호는 제한적
- 워시 의장을 비롯해 바, 윌러 등 연준 인사들은 대체로 노동시장이 완전고용에 부합한다고 평가
- 9월 지표에서는 8월 고용 반등의 지속 여부 확인 필요. 다만 고용이 큰 폭으로 악화되지 않는 한 기존 평가를 바꾸기는 어려울 전망
- 잭슨홀과 9월 FOMC를 거치며 추가 인상 논의의 무게 중심은 물가로 확연히 이동함. 고용지표 영향력은 이전 보다 낮을 것으로 보임

주요 경제지표 발표

매크로 / 시장 이벤트

9/28 (월)	■ 中 8월 산업생산 (P: 11.2%yoy)	■ 日 9월 금정위의사록 공개
9/29 (화)	■ 美 8월 JOLTs 구인건수 (C: 7,225K, P: 7,271K)	■ OpenAI DevDay 2026
9/30 (수)	■ 美 8월 PCE물가지수 (C: +3.7%yoy, P: +3.7%yoy)	■ G20 무역장관회의(~10/1일) ■ [실적발표] 美 마이크로
	■ 美 9월 ADP 취업자 변동 (C: +58K, P: +38K)	
	■ 中 9월 NBS 제조업 PMI (P: 49.8) ■ 中 9월 NBS 서비스업 PMI (P: 49.0)	
10/1 (목)	■ 美 9월 ISM 제조업 PMI (C: 55.0pt, P: 54.6pt)	■ 中 휴장(국경절, 10/1~7일) ■ [실적발표] 美 나이키
	■ 韓 9월 수출 (P: +68.7%yoy)	
10/2 (금)	■ 美 9월 비농업고용 (C: +10.7만명, P: +16.2만명) ■ 美 9월 실업률 (C: 4.2%, P: 4.1%)	■ 中 휴장(국경절, 10/1~7일)
	■ 유 9월 소비자물가지수 (P: +3.2%yoy)	
	■ 韓 9월 소비자물가지수 (P: +3.1%yoy) ■ 韓 9월 근원 소비자물가지수 (P: +3.4%yoy)	

추천 종목

섹터/산업	종목/코드	편입가 (원) 편입 날짜	수익률	최근 1년간 차트	주요 실적 예상 & Valuation	투자 포인트																				
화장품	아모레퍼시픽 (090430)	- (9/28일)	신규 편입		(단위: 십억원, 배) <table><thead><tr><th></th><th>25년</th><th>26년</th><th>27년</th></tr></thead><tbody><tr><td>매출액</td><td>4,252.8</td><td>4,725.8</td><td>5,177.0</td></tr><tr><td>영업이익</td><td>335.8</td><td>487.1</td><td>567.2</td></tr><tr><td>순이익</td><td>247.3</td><td>390.0</td><td>453.4</td></tr><tr><td>PER (배)</td><td>35.0</td><td>26.3</td><td>22.6</td></tr></tbody></table>		25년	26년	27년	매출액	4,252.8	4,725.8	5,177.0	영업이익	335.8	487.1	567.2	순이익	247.3	390.0	453.4	PER (배)	35.0	26.3	22.6	- 더마 스킨케어 브랜드 글로벌 매출 목표치 상향 - 헤어, 바디 카테고리 확대에 따른 수혜 기대 - 국내에서 검증된 경쟁력을 글로벌 성장으로 전환하는 흐름이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요소가 될 것
	25년	26년	27년																							
매출액	4,252.8	4,725.8	5,177.0																							
영업이익	335.8	487.1	567.2																							
순이익	247.3	390.0	453.4																							
PER (배)	35.0	26.3	22.6																							
반도체	파두 (440110)	- (9/28일)	신규 편입		(단위: 십억원, 배) <table><thead><tr><th></th><th>25년</th><th>26년</th><th>27년</th></tr></thead><tbody><tr><td>매출액</td><td>92.4</td><td>385.3</td><td>771.1</td></tr><tr><td>영업이익</td><td>(65.5)</td><td>88.0</td><td>217.0</td></tr><tr><td>순이익</td><td>(76.2)</td><td>49.0</td><td>195.2</td></tr><tr><td>PER (배)</td><td>-</td><td>73.9</td><td>18.6</td></tr></tbody></table>		25년	26년	27년	매출액	92.4	385.3	771.1	영업이익	(65.5)	88.0	217.0	순이익	(76.2)	49.0	195.2	PER (배)	-	73.9	18.6	- Meta Muse 출시 이후 Connect 행사까지 이어지며 AI 모멘텀 지속 - Meta 내 컨트롤러 점유율 지속 상승 중, 핵심 최종 고객사의 AI 사업 진전으로 향후 실적 추정치 상향 가능성 높아짐 - 하이퍼스케일러 고객사 3곳 확보, 연내 CSP 직납 비즈니스도 확정될 전망 - eSSD 수요 눈높이 지속 상향 조정 중, 원달러 환율 악영향에도 2H26 실적 추정치 상향 조정함
	25년	26년	27년																							
매출액	92.4	385.3	771.1																							
영업이익	(65.5)	88.0	217.0																							
순이익	(76.2)	49.0	195.2																							
PER (배)	-	73.9	18.6																							
화학	후성 (093370)	- (9/28일)	신규 편입		(단위: 십억원, 배) <table><thead><tr><th></th><th>25년</th><th>26년</th><th>27년</th></tr></thead><tbody><tr><td>매출액</td><td>471.6</td><td>690.8</td><td>765.9</td></tr><tr><td>영업이익</td><td>25.3</td><td>76.5</td><td>105.7</td></tr><tr><td>순이익</td><td>7.0</td><td>49.6</td><td>79.7</td></tr><tr><td>PER (배)</td><td>152.1</td><td>36.3</td><td>20.3</td></tr></tbody></table>		25년	26년	27년	매출액	471.6	690.8	765.9	영업이익	25.3	76.5	105.7	순이익	7.0	49.6	79.7	PER (배)	152.1	36.3	20.3	- 국내 반도체 고객들의 생산 라인 증설 강도 사상 최고 수준, 동사의 반도체 가스 부문 성장 구조적으로 판단 - 온실가스 국제 규제 및 히트펌프 활성화에 따른 냉매 수요 증가, 동사의 냉매 관련 수요 증가 예상 - 미국 최종 고객사들의 비중국산 LiPF6 요구, 동사의 LiPF6 생산 CAPA가 전년 대비 약 7.4배 증가 예상 및 무수불산부터 직접 제조로 차별화된 강점 보유
	25년	26년	27년																							
매출액	471.6	690.8	765.9																							
영업이익	25.3	76.5	105.7																							
순이익	7.0	49.6	79.7																							
PER (배)	152.1	36.3	20.3																							
운송	제주항공 (089590)	- (9/28일)	신규 편입		(단위: 십억원, 배) <table><thead><tr><th></th><th>25년</th><th>26년</th><th>27년</th></tr></thead><tbody><tr><td>매출액</td><td>1,579.9</td><td>1,979.4</td><td>1,970.8</td></tr><tr><td>영업이익</td><td>(111.7)</td><td>20.0</td><td>123.7</td></tr><tr><td>순이익</td><td>(116.4)</td><td>(21.3)</td><td>62.1</td></tr><tr><td>PER (배)</td><td>-</td><td>-</td><td>6.0</td></tr></tbody></table>		25년	26년	27년	매출액	1,579.9	1,979.4	1,970.8	영업이익	(111.7)	20.0	123.7	순이익	(116.4)	(21.3)	62.1	PER (배)	-	-	6.0	25년 연간 인천-중국 노선을 주 25회 운항하며, 약 40만명 수송 - 이번에 확보한 인천-중국 운수권 전량 취항시 노선 주 36회(+43%)로 확대 전망 - 유가, 환율 등 비용 지표 하락
	25년	26년	27년																							
매출액	1,579.9	1,979.4	1,970.8																							
영업이익	(111.7)	20.0	123.7																							
순이익	(116.4)	(21.3)	62.1																							
PER (배)	-	-	6.0																							
엔터	와이지엔터테인먼트 (122870)	44,950 (9/14일)	-4.1%		(단위: 십억원, 배) <table><thead><tr><th></th><th>25년</th><th>26년</th><th>27년</th></tr></thead><tbody><tr><td>매출액</td><td>545.4</td><td>635.5</td><td>564.5</td></tr><tr><td>영업이익</td><td>52.2</td><td>78.2</td><td>70.9</td></tr><tr><td>순이익</td><td>53.7</td><td>61.6</td><td>60.3</td></tr><tr><td>PER (배)</td><td>35.2</td><td>16.1</td><td>15.7</td></tr></tbody></table>		25년	26년	27년	매출액	545.4	635.5	564.5	영업이익	52.2	78.2	70.9	순이익	53.7	61.6	60.3	PER (배)	35.2	16.1	15.7	3분기 빅뱅 컴백에 따른 실적 기대감 - 환영향도 상대적으로 제한적 - PER 10배, 밸류에이션 역사적 하단
	25년	26년	27년																							
매출액	545.4	635.5	564.5																							
영업이익	52.2	78.2	70.9																							
순이익	53.7	61.6	60.3																							
PER (배)	35.2	16.1	15.7																							